날씨 프리미언 TV연예 ヘ亚ス 뉴스스탠드

뉴스 검색

팩트체크 언론사설정 언론사뉴스 라이브러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오피니언 정치 경제 세계 포토

10.03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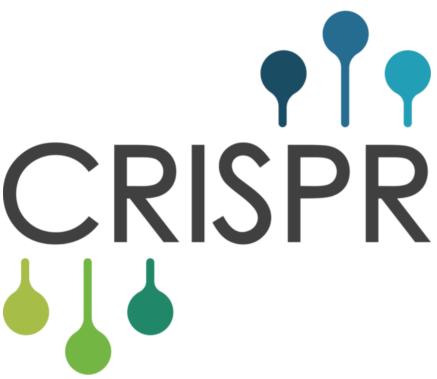
🦥 동아사이언스

유전자 가위 특허를 무료로 허하라

기사입력 2021.09.24. 오전 11:06 기사원문 스크랩

18 7

네덜란드 바헤닝언대 유전자가위 기술 특허 무료 공유계획 발표



크리스퍼유전자가위 기술 로고. 위키미디어 제공.

지난해 노벨 화학상을 받으며 생명공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로 떠오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특 허를 무료로 공개하자는 주장이 최근 과학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파급력이 매우 큰 기술인만큼 비 상업적 목적의 교육·연구용으로 공유해 누구나 마음껏 쓰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크리스 퍼 유전자가위는 특정 DNA 염기를 찾아가 원하는 부위를 잘라내는 기술이다. 난치성 유전질환 치료 에 활용될 수 있어 향후 수십억달러(수조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등에 따르면 이달 초 네덜란드 바헤닝언대(Wageningen University)는 비영리 기관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공유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식 품과 농업 분야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무료로 특허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바헤닝언대는 이번 조치로 중저소득 국가 연구자들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에 이전보다 쉽게 접 근할 수 있어 식량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직간접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작물이 기 후변화의 영향을 덜 받도록 일부 유전자를 교정하면 식량난 해결에 적잖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 다.

바헤닝언대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가 설립한 브로드연구소, 미국 버클리캘리포니 아대(UC버클리),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설립한 바이오기업 툴젠 등과 함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 특허를 보유한 세계적인 연구기관 중 하나다.

동아사이언스 랭킹 뉴스

오후 3시~오후 4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능텐

1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면 이달 중순 확진 3000~ ... 1시간전



2 "변이 코로나는 '공기 감염' 가능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진 ... 3시간전



3 한국도 도입 검토중인 '머크' 코로나 치 류제 인원·사망 4시간전



4 코로나 신규 확진 2086명...토요일 발 생 기준 두 번째 ... 5시간전



5 SMR 기후위기 구원투수될까 1일전



시장님의**자금회전**을돕는**빠른정산**



NAVER

분야별 주요뉴스

'주술 논란' 윤석열 측 "홍준표, 역술인이 지어준 이름으로 개명" 이준석, 이재명 향해 "1번 플레이어 조용히 좀 하라, 할 말은 특... 이재명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 '대장동 의혹'에 반박 북한, 미사일 안보리 소집에 "명백한 이중 기준" 반발(종합) '최악의 전략난' 中, 에너지 정책 대대적으로 손질하나

쌍용차 인수후보 자금 증빙 부족에 매각 지연 "더 노력했다면 살아있었을까요?"…서초동물사랑센터에 모인 ... 갭투자 잡겠다더니...文정부 들어 40%대로 늘어 예약해도 한참 기다려야 하는 아이폰13... 그 이유는? 방통위, '휴대폰 구매 시 사기 피해 예방' 영상 온라인 공개

軍 집단감염 등 추석 후폭풍 '확산'...연휴 이동량 '고비' 화천대유 김만배, 박영수 전 특검 인척에 100억 전달 "11억 빌렸다" 유동규 구속 갈림길...오늘 밤 늦게 결정 '오징어 게임' 발리우드 뚫고 넷플릭스 세계 제패...제프 베조스.. 개천절, 전국 늦더위...30도 안팎 큰 일교차[날씨]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

오후 3시~오후 4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코로나 두려워할수록, 성관계 더 많이 한 다"...공포의 ...



연천 군부대 확진자 대부분 화이자 백신 접종한 '돌피 **KBS**



더보기

네이처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됐거나 출원 중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만 약 6000개에 이른다. 현재도 매월 200여개가 추가되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과 미국이 출원하거나 등록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아닌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 등록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특허에 영향을 줄 핵심 특허는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대부분 선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주요 특허를 보유한 대학과 기관들이 무료 공개 대열에 합류한다면 불필요한 특허 확보 경쟁이나 분쟁 없이 전세계에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특허 공개 운동에 나선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맞서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특허를 일시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 특허 공개 움직임 역시 백신 특허 일시 면제 요구와 맥락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허가 수세기 동안 발명자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기업이 경쟁자의 기술 개발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공의 이익에 활용돼야 할 기술이 특허 전략으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대학병원협회는 앞서 지난 2019년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특허와 라이선스'에 대한 10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학술 기관이 연구결과를 연구나 교육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 연구 결과가 사 회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헤닝언대는 "중저소득 국가의 식량난을 개선하는 데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안녕하세요. 동아사이언스 김민수 기자입니다.

[백신 업데이트] 중국의 또다른 백신 '클로버' 델타 변이 '대항마'되나 연일 확진자 쏟아져도 '위드 코로나' 계획대로 간다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의 모든 것

네이버에서 동아사이언스 구독하기



7개의 댓글 내댓글

이 기사의 댓글 정책은 동아사이언스가 결정합니다.







🥨 머니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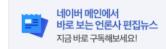
'한 달 전기요금 6000원' 찍히자...이웃들 도 줄줄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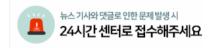
📵 한국일보

우한 실태 폭로 후 사라진 中 시민기자, 600일 만에 모 ...

🔞 아시아경제







등록

10/3/21, 3:12 PM 현재 댓글 5 작성자 삭제 2 규정 미준수 0 notae0506 질의 댓글 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또는 특정 계층/민족, 종교 등을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토론문화와 양

0 / 300

순공감순 최신순 공감비율순

클린봇이 악성댓글을 감지합니다. 설정

ymch**** 2021.09.24. 15:41

이걸 왜 무료로 풀어? 미쳤니? 상생 개드립에 속지 좀 마.

단글 작성 9 1

dmsg**** 2021.09.24. 16:55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특허 가진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특허 무료로 "해줘"임?

답글 작성 0

eph6**** 2021.09.24. 15:39

이런 기술을 그냥 공개하자고 바람 넣는건 뒤에서 비밀 실험 하는데 추적 받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의 계획이거나 아니면 진짜 엄청나게 순진무구한 생 각 같은데. 테러집단이 핵무기야 원리는 이미 다 알아도 플루토늄이 없어서 못만들지만, 제 3세계 국가나 테러리스트도 저런 기술 알면 생화학 무기는 만들 수 있을걸요

답글 1

im_j**** 2021.09.26. 15:18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 1

dxko****

2021.09.24. 12:38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gji0**** 2021.09.24. 12:24 그걸 허가하면 독재주의 국가들이 인간 개조하는데 쓸텐데 ^^

답글1 6

rjad**** 2021.09.24. 11:36

딱 공산주의식 마인드네

답글 작성 2 3

댓글 더보기

IT/과학 속보 기사목록 전체보기

[부음]안효범(공주대 교수)씨 부친상

'빅테크 규제'에 카카오·네이버를 바라보는 온도차

유전자 가위 특허를 무료로 허하라

1만년 전 사라진 매머드 복원에 부자들은 왜 투자했을까

게임업계 취업문 열린다...NC·넷마블 공채 실시

언론사 목록 분야별 목록 마이스크랩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공처 또는 네이버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NAVER Corp. All Rights Reserved.